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3년7개월 만의 귀환

李대통령, 새해부터 여민관서 집무

참모들과 ‘1분 거리’...투명성 강조

게임·파면 얼룩진 ‘용산시대’ 퇴장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이 3년7개월 만에 다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돌아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롯한 주요 시설이 성탄절을 전후해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다시다난했던 ‘용산시대’는 막을 내리고 내년부터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다.

◇‘본관’ 대신 ‘여민관’...‘실무형’ 정책 허브

이번 청와대 복귀의 핵심은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소통 강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이 주로 사용했던 본관이 아닌, 참모들이 상주하는 업무동인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본관을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 행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여민관에서 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인 ‘3실장’의 사무실도 여민관에 배치해 대통령과 참모가 ‘1분 거리’ 내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거 청와대가 본관과 여민관의 물리적 거리(약 500m)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보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가 임박한 21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경찰이 외곽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무실 운영 취지를 계승해 여민관을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핵심 정책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중궁궐’ 우려 씻고 이름도 ‘청와대’ 원복

정부는 청와대 재이전과 함께 공식 명칭을 ‘청와대’로 원상 복귀하고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

거 청와대의 것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직원 명함 등도 이에 맞춰 교체된다.

가장 큰 과제는 과거 청와대가 지적받았던 ‘구중궁궐’, ‘불통’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투명한 대국민 소통’

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이전 후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경호처 역시 시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했던 검문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복귀가 ‘시한부’가 될 가능성도 있

다. 이 대통령이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청와대는 향후 제2집무실이나 시민을 위한 역사·문화 공원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 관저 보수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尹이 연용산 시대 ‘역사속으로’

새로운 청와대 시대의 개막은 곧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던 ‘용산 시대’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한다. 2022년 5월 권위주의 정산을 명분으로 시작된 용산 시대는 3년7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용산 시대는 시작부터 관저 공사 지연, 예산 낭비 논란, 이태원 참사 당시 경호 인력 집중 문제 등으로 술한 비판을 받았다. 소통의 상징으로 도입됐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역시 취임 6개월 만에 중단되며 빛이 바랬다.

특히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군과의 물리적·심리적 밀착은 결국 미국의 단초가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지리적 밀착을 지난 12·3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용산 청사는 이제 주인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됐다.

/김진수 기자

김영록 지사 내달 18일 출판기념회...‘3선 도전’ 쟁점

‘진심정치’·‘모두를 위한 정책’ 출간

6·3 지방선거 출마 준비 본격화 전망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영록의 진심정치’와 ‘김영록의 모두를 위한 정책’ 등 저서 2권을 출간하고 내달 1월18일 나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지사는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3선 도전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저서 ‘김영록의 진심 정치’는 45년 넘게 행정과 정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 온 정치인 김영록의 진솔한 고백이다.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재선 도지사로 도정을 이끌기까지 ‘말보다 책임이 먼저’라는 흔들림없는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현장의 질문 앞에서 정답을 찾



려 애쓰며 과감하게 행동에 나섰던 정치인의 여정이자, 지역과 현장을 통해 쌓아올린 경험이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의 비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또한 김 지사는 윤현석 전남도 정책수석과 함께 ‘김영록의 모두를 위한 정책’을 공동 집필했다.

정책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며, 성과보다 책임이 먼저라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정책이 작동해야 할 이유와 정치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되묻는 한편, 지역의 가능성을 세계적 과제로 확장하고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출발한 정책이 어떻게 미래의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보여준다.

김 지사의 저서 2권은 22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된다.

김 지사는 내달 1월18일 오후 2시 나주혁신도시 내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동안 전남도정에 전념해 온 김 지사가 저서 출간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년 6·3 지방선거 전남지사 3선 도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재정 기자

문금주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발효액비(이하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처리한 비료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농업 자원이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자원순환 농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액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엄격한 살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농가 현장에서는 액비 활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액비의 합리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액비는 이미 비료공정 규격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엄연한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살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액비 활용 확대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전남도,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행사

전남도는 지난 19일 국립목포대학교 글로벌 스타트업센터에서 제17회 전남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혁신과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우승희 영암군수,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손명도 해남부군수, 전경선·손날일·신승철 전남도의원, 한정동 HD현대삼호 부사장, 이석문 대한조선 대표이사 등 지자체·기업·대학·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시·군, 대학, 연구기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전남도 조선산업 미래혁신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김재정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회호
220603-중-139779